

서울特別市議會
第326回 任時會
2024.08.28

市 政 質 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마포4)

시정질문요지

1. 오세훈시장 시정방향(지역균형발전) 철학은?
2.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설 백지화(결정고시 철회) 되어야
3. 대장홍대선(서부광역철도) DMC환승역 서울시가 살려내야
4. 오세훈시장의 상암 재창조 관련 - 정책제안
 - 1) “문화비축기지 광장” 원래 계획했던 영상문화컴플렉스 조성돼야
 - 2) DMC랜드마크용지 “매각전담과” 구성 적극 환영
 - 3) 서울시가 지켜온 서부면허시험장부지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
 - 4) 10년 끌어온 DMC복합쇼핑몰 25년 착공되게 인허가 신속처리
 - 5) 서울대관람차 평화의공원에 “꼭” 해야 합니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시장,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난지도의 외로운 별” 김기덕 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세훈 시장의 시정철학과
제 지역 주요 현안들의 추진상황을 짚어보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자리에서

제 질문을 충분히 들으신 후 답변에 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세훈시장 시정 정책 방향]

오세훈 시장님은 요즘 바쁩니다.

아마 27년 대선을 앞두고 여느 때와 다르게

정치적 행보나 발언을 서슴지 않으시는걸 보니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나서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역대 모든 시장의 철학과 정책 중
우선순위를 꼽는다면 서울시 지역 간 균형발전이었습니다.

오세훈시장 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5조에 따라

22년부터 26년까지 “서울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입니다.

지역 간 격차해소 및 지역 특성을 살려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5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균형발전 목적 및 추진전략 - 5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시정 방향과 철학으로 시책을 잘 펴도 부족할 터인데,
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엄청난 모험을 하고 계시는 일이 있어,
안타까움을 떠나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오시장의 서울시 균형발전 철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마포소각장 백지화 되어야 - 6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설 백지화 되어야]

서울시는 2년 전 8월 31일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 후보지로
기존 시설이 위치한 마포구 상암동 부지 옆으로 결정했다며,
26년까지 1,000t 시설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추가건설 위치도 - 7

누구와도 어떠한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기습 발표를 한 것입니다.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밀실행정을 단행한 것입니다.

난지도 쓰레기 산 실태 사진 - 8

천만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을 기억 할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2005년
하늘, 노을공원 사이에 750t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해/ 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
쓰레기 처리로 마포구민은 각종 피해를 감수하고 있음에도/

급기야 이제 신규 1,000t 규모의 소각장까지/

떠안아야하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반한 기막힌 사실에 대해

추가건립 철회 주민궐기대회 - 9

우리 마포구민은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2년 여간 하루도 쉬지 않고 백지화 투쟁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 결정고시(23.8.31)에 따른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4개자원회수시설 개요 - 10

참고로, 서울시는 현재/ 강남 900t, 노원 800t,

양천400t, 마포750t, 총 2,850t이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쓰레기 1일 발생량은 3,200t입니다. 알고계시지요.

서울시 쓰레기의 절반인 1,750t을 상암동에서

태우면/ 그로인한 유해물질 배출과 출입 차량 증가로/

마포 주민들의 심각한 건강, 생활피해가 크게 우려될 뿐더러

난지도 쓰레기산인 하늘, 노을공원이

세계적인 명소가 된 이곳에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설!

유치원생도 웃을 일입니다.

이렇게 마포 눈물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밝혀져야 하겠습니다.(탁자)

주민말살 만행 굴뚝사진 - 11

2022년 8월 25일

신규자원회수시설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마포 상암동 기존시설 옆으로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환수위 추천으로 입지선정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노원구 모 의원께서는 기존 소각장이 있는 4개 자치구는
제외 하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다며,
형님! 왜 마포로 가버렸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5대 때 서울시 추모공원건립 추진위원으로
봉두환, 최열, 한천주 등과 함께 활동했습니다.

화장장 후보지로 망우리, 원지동, 강서,
마포(지금 소각장부지) 네 군데가 거론되었었습니다.
첫 회의부터 마포는 소각장 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니/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켰고,
결국 원지동으로 결정한 사실을 아십니까?

당연히 소각장이 하나도 없는

21개 자치구 중에서 선정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시장

서울시 폐기물 광역화 관련 - 12

하지만, 서울시 결정은/

그 간 묵묵히 고통을 참고 견뎌온 주민들 피해를

전혀 고려치 않고,/ 희생을 당연시한 오세훈시장의

균형발전 시정철학을 의심케 하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폭거
로/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시장!

제가 주장하는 불가 이유는

기피시설 대원칙인“지역형평성”을 위배한 불공정한 결정이고

주민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점과

서울시 균형발전의 역행 때문입니다.

소각장 전면백지화 기자회견 -13

소각장 토론회 사진 -14

서울시/주민대표 간담회사진 -15

본 의원은 2년여 동안 주민과 함께/

각종 공청회, 토론회, 기자회견, 집회, 탄원, 의회발언,

서울시와 주민대표 간담회 등을 통해/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계획의 부당성”과 백지화를 끊임없이 촉구해왔습니다.

또한, 23예결위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설치 사업예산 전액 삭감안을 제출한바 있고,
이번 '24서울시 추경에서 “난지창작미술 스튜디오”
이전관련 예산/ 1억4천7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미술관장에게는 미안하지만요.

김현기의장 1구 1소각원칙 피력 -16

지난 6.12 김현기 의장님도
의장석에서 “1구 1소각 원칙”으로
지방자치 원칙에 입각해서 소각장이 설치 운영되어야한다
고 밝힌바있습니다.

마포쓰레기 소각장 추가 설치 계획은/ 다음과 같이
시작부터 불법, 독선, 밀실행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답변하실 질문입니다.

첫째,

서울시는 모든 과정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추가 설치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20여회 소각장 관련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마땅히 투명하게 시의원에게 공개해야할
자료임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보안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 “땡땡땡 땡땡땡”
일색입니다. 왜 땡땡땡하고 정당하면 무엇이 두려워서
투명하게 공개를 못하시는 겁니까?

둘째,

「폐기물 시설축진법」 제9조는
다른 지자체 경계로부터 2km 안에 입지를 선정할 때는/
해당 자치단체장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강제사항으로 규
정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고양시 등 인접 자치단체장
과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20년 12월 10일 시행된
「폐기물시설축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선위원을 11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촉일자가 20년 12월 15일인 입지선정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민대표나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전문가 2명이 포함되지 않는 등,/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되자 23년에야 마포주민 이모씨를 슬그머니 끼어 넣는 촌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소각장 결정고시 무효 기자회견 -19

넷째,

「폐기물 시설축진법」 제1조는

주변지역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의 의견청취”는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절차 진행에 필수적 사안인데,/ 서울시나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과 대화 한번 없이 밀실에서 결정했습니다.

다섯째,

지난해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포함되지 않은 점과/

과거 허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유신) 등으로/

적발되었던 업체의 환경영향평가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 서울시는 지난달 7월 두차례 미룬 환경질조사에/

주민 참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놓고/ 당일 3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해버리는 주민무시 행위를 벌였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주민에게 협조를 구하기는커녕/ 관련부서는 발 빼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금년1월 새로 오셨다는데 누굽니까?

여섯째,

서울시는 기존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선정해야함의 원칙을 어겼습니다./

78년부터 15년간 매립하고/ 그 위에 750톤 소각장을 건립하여 19년째 운영하고 있음에도/ 추가건설은 마포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자치구별 형평성을 현저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수소체험박물관 위치도 -20

일곱째,

본 의원이 해당부지에 야심차게 제안하여/

2019년부터 추진했던 수소체험박물관이 기본 용역을 마치고,/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철회된 사실도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점 하나하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당장! 마포 쓰레기 소각장 결정고시 철회하여 주십시오.

본의원의 평소의 주장이었는데/

금년1월 마포구청장도 기자회견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직 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

서울시는 1,000톤의 추가 소각장이 필요하지만,/

이는 소각장에서 처리되지 않은 생활폐기물을 포함한

수치이며/ 환경부 자료를 확인하면 744톤의 소각처리가
필요합니다.

750톤의 규모인 마포구 소각장에서

실 처리되는 것은 585톤으로 78% 가동되고 있으며,/

강남, 양천, 노원 소각장 가동률은

79.82%로 2,275톤 소각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설 개선을 하면 됩니다.

서울시 또한 시설현대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 개선으로 4개의 소각장이

100% 가동되면 2,850톤 소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매일 575톤을 추가 소각할 수 있으며,/

결국, 직 매립 금지시 문제되는 쓰레기는 169톤에 불과합니다.

이는

1,철저한 재활용 분리배출,

2,커피박 재활용

3,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혼입 금지,

4,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자가 처리 등

확실한 감량정책으로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귀중한 혈세 1조 2,800억 원으로/ 추가 소각장을 짓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선택입니다.

시장님!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절규하는 마포구민의 소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민 소송의 결과에 관계없이/

과감히 마포 소각장 추가 결정고시를 철회하고/

전향적인 다른 방법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강행하신다면,

주민반대에 부딪쳐 리어카 한 대도 못 들어가/

첫 삽도 못 뜨는 불행한 사태가 계속될 것입니다.

한번 결정한 일이라서가 아니고,/ 잘 못된 결정이라면

과감히 거둬들일 줄 아는/ 이런 멋진 서울시장을 원합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지요.

시정질문 김기덕 기본화면 - 24

질문1)

시장께서는 작년 봄. 유럽 소각시설 견학 시에

주민과 대화하고 싶다는 뉘앙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궁금하기도 해서 이후 시장님과 면담일정을 잡았으나,/

일부 주민이 “협상하러 가느냐?”며 의견이 분분해/

제가 일방적으로 취소한바 있었습니다.

당시 무슨 뜻으로 주민 만남을

언급하셨는지 그때 심경을 솔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질문2)

“보안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 “땡땡땡 땡땡땡”

일색입니다.투명하게 공개를 못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답변 :

질문3)

위에서 제기한

- 1, 2Km내 다른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안한 거
- 2, 입지선정위원 구성요건(10명, 마포주민) 위반
- 3, 입지 선정 시 주민의견 미 청취
- 4, 문제가 된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선정한 점
- 5, 4개구를 제외한 21개구에서 선정을 안 한 거
- 6, 수소체험박물관이 소각장 때문에 사라졌다고 보는데

하나하나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입선위 결정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겠지요?

답변바랍니다.

☞ 답변 :

질문4)

오세훈 시장님! 다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1번) 부당한 결정 “마포 소각장 추가건설”은 당연 철회하고/
25개 자치구중 4개구를 제외한 곳에 다시 선정하십시오.

2번) 아니면, 앞에서 밝힌/ 4개 시설을 현대화하고/
쓰레기 감량정책을 과감히 시행하면/ 3,000여톤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안을 선택하
십시오.(이는 환경지킴이 오시장님의
탄소중립 정책과도 절대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 1번인지, 2번인지 답변해주십시오.

-아니면 또 다른 특단의 대안이 있으십니까?

☞ **답변 :**

다시 말씀드립니다. 훗날 후회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장은 신규 쓰레기 소각장

마포구 상암동 선정, 결정고시 철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의 진정성을 믿고, / 변화된 정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잠시 들어가시지요.

〈질문16분+답변9분=25분〉

[대장홍대선 DMC환승역 살려내야]

저를 두고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5대 때는 월드컵시의원, 8대는 지하철시의원,
10대는 쇼핑몰시의원이라고요.

8대 그러니까 2010년, 저의 의정활동 제1목표가
서북권과 서남권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건설이었습니다./
홍대입구에서 성산, 상암, 가양, 화곡을 연결하는
지하철 9-1호선 12km 건설입니다.

마포, 서대문, 은평 주민이 강서를 가려면,/ 홍대입구에서
당산역으로 가서 9호선을 갈아타고 가양역으로 가야만합니다.

1. 화곡까지 20분이면 갈 거리가 50분 걸립니다.
2. 동부지역은 강 남북을 잇는 철도가 치중된 반면,
상대적으로 서부지역은 공항철도 외엔 없습니다.
3. 이로 인해 지역발전에 막대한 저해를 가져옵니다.

시의원이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었지만 /
누군가 필연적으로 해야 하기에 야심차게 시작했습니다.

오세훈시장께 최초 문을 두드렸습니다./

2011년 6월 23일 바로 이 자리에서

타당성 제안을 구구절절하게 30분간 말하고/

2013년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에 넣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세훈 시장-

“반영 될수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함으로 물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하철9-1호선 시정질문 동영상 -26

대장홍대선 금년 착공을 앞둔 시점에

- 오세훈 시장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나가자

마포는 정청래, 강서는 신기남국회의원이 주축이 되어/

마포, 강서, 양천지역 국회의원,구청장, 시.구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서부지역 지하철 추진위 발족식”을 갖게 됩니다.

서부지역 지하철 추진위발족 -27

이후, 박원순 시장이 등장

2012년 11월 28일 다시 시정 질문을 하니/

“진행 중인 도시철도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보고/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습니다.

8부 능선은 넘은 것 같습니다./ 국회 공정회를
비롯해 주민설명회 등/ 언론, 학계, 전문가를 총 동원했지요.

지하철 공청회 사진 -28

결국 2013년 7월 24일/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에 홍대-화곡간 후보노선으로 선정되게 됩니다.

MBC 보도 사진 - 29

도시철도 후보노선 선정 -30

후보노선 선정 / 현수막 -31

아마, 서울시 도시철도로 진행했으면 BC1 확보되어
이미 완공이 되었을 텐데,/ 정치권의 욕심으로 16년 6월 17
일 부천 원종까지 연장하는 서부광역철도로 바뀌고,/ 또 대장
까지 연장해 대장홍대선이 되어/ 금년 말 착공을 앞두게 되었
습니다.

사업비는 2조 1,287억원, 총연장 20km,/ 사업방식은
국가시행 민자사업으로 현대건설과 협약이 체결되었고,/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최초 본의원이 제안한 도시철도 노선이나

2019년 서울시가 대장홍대선 정거장을

홍대입구-성산-DMC환승-상암-덕은-가양으로

건의되어 추진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DMC환승역이 빠진 상태로/ 협약이 체결되어

진행된 사실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DMC환승역은 이 노선 중 핵심역이며,/

4개 노선(경의중앙선, 6호선 DMC역, 공항선, 대장홍대선)을

환승해야하는 구심점의 역인데,/ 현대건설 측에 의하면 미래에

측 수요가 미달이라는 /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의 필요성은 4개 노선 환승도 환승이지만,/

상암복합쇼핑몰, 랜드마크, 수색역세권개발, 성산시영5,000여

세대 재건축, 등/ 향후 성장 잠재력이 뛰어나,/

서울시나 마포구가 안한다 해도/

넣어 달라고 사정해야 될 판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에 서울시도 수차례 국토부에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이나 마포구청장도 국토부장관께 요청하고 있는
데도 / 꿈쩍도 안하는 현실에 / 주민들은 대장홍대선 무용론
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딜라이브TV Dmc역 -35

시장님 나와 주시지요.

우선 이 노선의 최초 제안에 물꼬를 잘 터주셔서
대장홍대선이 태어났습니다. 시장님 공이 큰 건 사실입니다.
고) 박원순시장님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시정질문 기본화면 - 김기덕 -36

우선 어떻게 해서라도 DMC환승역은
실시설계에 반영되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마포구청도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서주셔야 합니다.

상암 재창조가 이 정거장하고도 크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이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해결해야합니다.

지자체가 1,000억 건설비를 만들어야합니다.

서울시 400억, 마포구 400억, 롯데 200억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특단의 결정이 시간을 다투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질문7분+답변3분=10분〉

상암재창조 전략공개 -37

[상암 재창조와 관련]

시장께서는 지난 5월 상암 재창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2002월드컵을 계기로 상암동 일대가/ 상전벽해와도
같이 천지개벽을 한건 맞습니다.

그러나 DMC와 함께 서북권 중심도시로의 계획은/
그동안 서울시의 무관심과 안일한 정책으로/ 20여년간 담보상태로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정체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장님! 부인하지 못하시지요?

4. 상암재창조 정책제안 - 38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DMC기능과 연계한 상암 비전을 제시하고자합니다.

[“문화비축기지 광장” 원래 계획했던 영상문화컴플렉스 조성되어
문화비축기지 관련입니다.

시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문화비축기지” 실패하셨지요?
체험형 여가시설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10년전 시정질문 한번 보시죠. (시간관계로 동영상은 생략)
-오래돼서 음향이 매끄럽지 못해 죄송합니다.-

영상컴플렉스 시정질문/ 동영상 -39

문화비축기지 전경 -40

강남에는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강북에는 세종문화회관 말고는 이에 버금가는 시설이 전무합
니다./ 천혜의 상암동 매봉산 자락 3만평 중 2만평은 산업유
산시설로 준치하고,/ 앞 광장 1만평은 DMC와 연관한 복합문
화공간 즉 영상문화컴플렉스 건립을 저는 추진하였습니다, /

지하2층/지상8층, 사업비 2,244억 원으로 건립하겠다고
2014년 1월 10일 서울시가 보도자료 발표까지 한 사실이 있습
니다, 보세요./ 당연히 한류문화 공연장 기능으로 갖어야했습니다.
누가 끼어들어 이 졸작을 만들었습니까? 책임져야합니다.

영상컴플렉스 건립 보도자료 -41

시장님!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답변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의장님!

시간 제약으로 상암 재창조와 관련된 나머지 부분인

1,DMC랜드마크용지 “매각전담팀”구성 환영

2,서부면허시험장부지 지역특성에 맞게 신속 개발

3,상암 DMC복합쇼핑몰 25년착공 되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4,서울대관람차 평화의 공원에 “꼭” 해야 합니까?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1-1 (59)

천만 서울시민과 마포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기우제를 지내놓고

비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일련의 정책이 서울시정에 반영되어

마포 상암지역이 서북권 중심도시로 거듭 태어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4분+답변1분=5분〉

〈서면 질문 - 김기덕 의원〉

랜드마크 매각전담팀 환영 -42

랜드마크빌딩 조감도 -43

[질문1 -DMC랜드마크용지 “매각전담팀” 구성 적극 환영]

다음은 상암 DMC랜드마크용지입니다.

원래 서울시 사업계획이 130층부터 잘 못되었습니다.

주변 환경과 지역 인프라를 전혀 고려치 않은 계획이었습니다.

랜드마크 추진경과 -44

2004년부터 20년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28일, 6차도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평당 8천만원의 공급가격, 공급지침 대폭 완화하고 사업자에게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10차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최대 걸림돌은 500m 거리에 1,750톤 소각장,

강북횡단선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대장홍대선이 받쳐주긴 합니다만,

저는 지난 6.10 보도자료를 통해

랜드마크용지 “매각전담팀” 구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몇일 뒤 시장께서 “매각전담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신 걸 봤습니다. 또 다른 구상도 갖고 계시던데 어떻게 하실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무엇보다 하루속히 사업자를 찾는 일이고, 늘 주장해왔던 공공목적의 시설이 들어와 지역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

면허시험장 지역에 맞게 개발 -46

[질문2-서부면허시험장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

다음은 서부면허시험장 관련입니다.

시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서부면허시험장은 금년 11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알고계시지요?

서부면허시험장 기본구상 -47

잘 아시다시피 서부면허시험장 약 3만여평은 8.4부동산대책으로 임대주택 3,200호 건립계획을

정치권과 주민이 막아내었고,
대한항공 송현동 땅과 맞교환하려 하였으나
의회차원에서 계약직전 또 중지시킨바 있으며,
결국 시장님 취임인사차 21.4.8 부의장인 제 방에
오셨을 때 송현동 부지는 서울의료원 부지와 바꿀 것을 제안
한바, 시장님의 결단에 의해 결정되었던 지난날이 생각납니다.

만약, 송현동 땅과 교환했다면, LH에서 밀어붙여
주민이 원하지 않는 공공주택이 들어왔을 겁니다.
당시 저의 제안을 흔쾌히 수용해 주신 오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세훈시장 부의장실 면담 -48

어렵게 살아남은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는 DMC와 연계한
4차산업 거점도시화가 진행되어야하고, 주민의견이 반영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어느 경우든
주민이 원하지 않고 있는 주택 공급은 안 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

상암 DMC복합쇼핑몰 -49

[질문3-상암 복합쇼핑몰 25년 착공되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다음은 상암 DMC복합쇼핑몰 관련입니다.

서울시는 2013년 상암 DMC단지 3개부지 6,245평을 1971억 7천400백만원에 롯데측에 매각을 했습니다.

상암복합쇼핑몰 부지 및 조감도 -50

지금쯤은 완공되어 마포, 은평, 서대문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지역발전을 도모했어야 함에도 망원시장과의 상생협의를 빌미로 7년여 간 건축허가를 지연시켜 95%가 찬성하는 이 지역 주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지요. 저는 당시 18.9.3 시장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DMC복합쇼핑몰 시정질문/동영상 -51

결국 지역주민과 함께 커져가던 상암쇼핑몰 다시 살려내 21.1.21 인허가나 마찬가지로인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DMC복합쇼핑몰 사업추진경위1 -52

DMC복합쇼핑몰 사업추진경위2 -53

그런데 이제 롯데가 회사 사정으로 3년을 끌더니 2023년 7월 24일 오피스텔을 대폭 줄이고 판매시설을

57% 늘리는 안으로 설계를 변경해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여, 서울시나 마포구로부터 보완을 요청해 조만간 다시 서울시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 또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2025년에는 착공을 가져오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시장님의 의견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서울대관람차 꼭 해야합니까? -54

공동사업자제안 추진현화 -55

[질문4-서울대관람차 평화의 공원에 꼭 해야 합니까?]

시장님의 역점사업인 서울 대관람차!

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1조 가까운 사업비로

민자사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월드컵공원내 평화의공원입니다.

면적은 총 23,275㎡ 보여 지네요.

시장님! 서울대 관람차가 왜 하필이면

평화의 공원 연못이 선정 되었는지 좀처럼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답변 :

잘 아시다시피 이곳은

철따라 온갖 꽃으로 가득했고, 수 많은 철새들이 둥지를 틀었던 아름다운 섬 난지도. 새천년 들머리에 우리들은 잊었던 이 땅을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4년의 노력을 기울여 2002년 5월 1일 월드컵공원으로 이름 지어 시민 품으로 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장 고 건-

수많은 서울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물가에서

자연과 어우러져 휴식을 즐기는 모습 보이시지요.

시민 품으로 돌아와 자리매김하여 “다시 찾은 땅 난지도”가

다른 목적으로 시민 걸을 떠나야 하느냐? 하는 물음에는

“난지도의 외로운 별” 김기덕은 답할 수가 없네요.